상진 스님 "청산처럼 살면 행복해집니다"

청련사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
2월 12일 경내 대적광전서 봉행
상진 스님 기도 회향 법문 설해
"마음으로 부처님 찾아라" 강조
방생법회 봉행… 꿩 방생하기도

양주=신중일 기자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에서 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

"고려시대 고승 나옹 선사의 게송 중 '청산이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란 구절이 있습니다. 청산과 창공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복(多福)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주 청련사는 2월 12일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향수해례와 육성례, 신중작법, 심향합창단 음성공양 등으로 진행된 이날 회향법회에서 청련사 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동안거 해제 법문을 통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으라고 대중에게 강조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靑山兮要俄以撫語/ 蒼空兮要我以無垢/ 聊無怒而無惜兮/ 如水如風而終我)'라는 고려 나옹 선사의 게송을 상기시킨 상진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께 부탁만 하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귀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부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청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의 도리이며 삶"이라고 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티가 많다. 그럼에도 타인의 조그마한 티가 있으면 이를 잡아내고 흠집내려고 한다"면서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티가 티를 만든다. 경전에 '너무 사랑하지말고, 너무 미워말라'고 당부한 것도 만나서 괴롭고, 안 만나져서 괴로워서다. 남을 원망하면 스스로 괴로워질 뿐이다. 이런 괴로움을 내려놓아라"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화두를 드는 것"이라며 "부처님을 칭명함에도 입으로만 방긋방긋 부처님을 찾지말라. 염불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 염불을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90일 삼동결제 동안 사중스님들은 불자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이런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해달라"면서 "불자 여러분도 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청련사 대중은 90일 삼동결제 기간 동안 기도에 매진해 온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배의 예를 올리기도 했다.

청련사는 삼동결제 해제 회향 법회와 함께 신중3일기도 회향, 방생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진행된 방생법회에서는 장엄한 방생의식이 봉행됐으며, 꿩과 까투리를 방생했다.

주한 대사 부인들 "직접 만든 삼색나물, 맛도 모양도 예술"

문화사업단, 'ASAS 세시풍속 음식체험'
2월 12일 22명 참여…나물·오곡밥 시식
하경 스님, 정월대보름·절식문화 소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2일 서울 인사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와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음식체험'을 진행했다.

고사리를 손질하고 취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던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의 얼굴에 신기함이 가득했다. 이들은 삼색나물을 직접 만들고, 부럼을 깨며 한국 정월대보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꼈다. 낯설지만 색다른 사찰음식 체험에 연신 웃음이 터져 나왔고,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2월 12일 서울 인사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와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음식체험'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호주, 볼리비아, 쿠바, 헝가리, 러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주한대사 부인들과 그 가족들, 체험관 이용자 등 22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지도법사 하경 스님이 정월대보름 풍속과 사찰음식의 의미, 절식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특히 고사리를 물에 불려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과 사찰음식이 오신채(달래·마늘·부추·파·흥거)를 금하는 이유 등을 쉽게 풀어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습이 진행됐다. 하경 스님의 지도에 따라 참가자들은 고사리를 씻어 삶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5~6cm 크기로 잘랐다. 먹기 좋게 손질된 고사리는 들기름으로 볶고 간장으로 간을 했다. 숙주는 깨끗이 씻어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소금과 참기름으로 무쳤다. 취나물도 고사리와 비슷하게 준비해 정갈한 삼색나물을 완성했다.

하경 스님은 "각국 나라 대사 부인들께서 사찰음식 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나하나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의가 돋보였다"며 "그들에게 나물은 낯선 식재료일 텐데, 막상 직접 실습을 하고나니 쉽고 집에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만든 삼색나물을 오곡밥과 함께 맛보며 사찰음식의 조화로운 맛을 경험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호두와 땅콩으로 부럼 깨기를 체험하며 한국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볼리비아 주한대사 부인의 딸인 마리아 사파타 알리아가(Maria Zapata Aliaga, 볼리비아) 씨는 "스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며 "음식에 담긴 의미까지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사코 미즈시마(Asako Mizushima, 일본) 씨는 "일본에서도 보름에 '단고'와 같은 전통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찰음식은 한국적 맛이면서도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평소 사찰에 자주 갈 수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 특별했다"고 밝혔다.

사찰음식은 프랑스인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어 강의해 함께한 아멜리 앙셀린(Amelie Ancelin, 프랑스) 씨는 "채소만으로도 단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극찬하며 "누구든 살면서 꼭 한 번씩은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음식"이라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16년 발자취를 담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 오지에서 끌다〉
2월 10일 후원자들과 북콘서트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 개척史
마을 자생, 인재 선순환 이끌어

캄보디아 북쪽의 외딴 '뽀디봉 마을'에서 16년간 희망과 자비의 기쁨을 이끌어온 비영리민간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발자취가 담긴 책이 발간됐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대표 오시환) 일동은 2월 10일, 조계사 교육국 옆 베이커리 조에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오지에서 끌다·사진〉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임원진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한데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톺아봤다.

박세동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넘기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도 많았지만, 이제는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자비 수레를 이끌었던 우리의 구호 '땡기자' '밀자'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정진하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네팔 안나푸르나 산골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다정 김규현 선생도 축하를 전했다. 김 선생은 "나누는 마음인 '자비'는 남을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과도 연결된다"면서 "따듯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실어 나르는 수레꾼이 16년간 걸어온 역사와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책을 쓴 오시환 대표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 오지에서 끌다〉 도서 소개와 더불어 후원자들의 뒷받침으로 일궈낸 성과를 하나하나 발표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2008년 뽀디봉 마을의 진입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어 뽀디봉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을주민의 자생을 위한 공예학교 설립을 이뤄냈다. 동시에 코코넛, 바나나, 망고 등 과일이 자라는 나무를 심어 황무지였던 마을을 녹음이 우거진 자연 마을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은 마을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교복, 교과서를 나누고 체육을 비롯한 예체능 교과를 확충했다. 또한 장학생을 선발, 도심 유학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마을로 돌아와 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며 인재 양성의 선순환까지 만들어냈다.

오 대표는 "여러분의 자비나눔이 있었기에 수레꾼의 16년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자비의 수레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북 콘서트에는 수레꾼 장학금을 받아 전북대 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멘 완니 씨도 참석했다. 멘 완니 씨는 "수레꾼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에 프놈펜대 한국어과 졸업 후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자비에 늘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책 발간을 축하하는 김슬옹 한국외대 교수(세종국어문화원장)의 축시 낭송, 박창준 판소리 명장의 축가도 진행됐다.

현재 도서는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가령 기자

동국대, 2025년 봄 학위수여식

2월 13일 학·석·박사 2877명
성적우수자·공로상 시상 함께



동국대가 학·석·박사 2877명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학생들의 힘찬 앞날을 응원했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2월 13일 교내 남산홀에서 '2025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위수여 대상자는 학사 1934명, 석사 787명, 박사 156명 등 총 2877명이다. 이어 성적우수자 14명 및 공로상 19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전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제정 스님, 윤재웅 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천 번의 마음으로 망설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행동할 것을 강조한 돈관 스님은 "여러분은 동국대를 세상에 알리는 대표"라며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삶을 개척하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지식을 쌓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민재 기자

수서경찰서 불심원, 정기법회…목탁 습의

비구니회, 매월 1·3주 법회
반야심경 맞춰 목탁 실습도



지난해 전국비구니회의 노력으로 5년 만에 문을 연 수서경찰서 법당 '불심원'이 정기법회를 열고 전법 의지를 다졌다.〈사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스님)는 2월 7일 불심원에서 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을 비롯한 6명의 경찰 불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불심원은 매월 1, 3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 문화포교부부장 대원 스님, 복지부 부장 보은 스님, 국제·사회부 부장 정호 스님이 한주씩 돌아가며 법회를 맡고 있다.

이날 금해 스님은 경찰 불자들에게 앙굴리말라의 일화를 들려주며 참회의 중요성을 일러줬다.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이고 100번째에 부처님을 만나 교화한 인물이다.

목탁 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목탁 사용방법을 익혔고, 반야심경에 맞춰 목탁을 쳐보며 연습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목탁 치는 방법을 배워보니 목탁의 의미와 스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청, 활안 스님 쾌유기원 법회

2월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작년 췌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中

대한불교청년회 지도법사인 활안 스님(대구 원효암 주지)의 쾌유를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활안 스님은 지난해 췌장암 판정 후 항암치료를 이어가며 병마와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가 2월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지도법사 활안 스님 쾌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을 법사로 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충훈)와 공동주관 했다.

조계사 청년회 16대 회장직을 역임한 활안 스님은 청년 전법의 중요성에 일찍이 눈을 떴다. 이에 스님은 출가 후 조계사 청년회 인연을 이어 대불청 지도법사를 맡게 됐다. 스님은 청년 포교에 '헌신'했다. 만해백일장, 전국청년대회 등 대불청 행사라면 빠짐없이 동참해, 대불청을 적극 지원해왔다. 스님은 입버릇처럼 "청년 불자가 바로 서야 한국불교도 바로 선다"며 청년 전법을 강조했다.

이날 대중들은 삼귀의·반야심경, 21배 정진,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활안 스님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341874 ((사)대한불교청년회)

김민재 기자

불교활동가 "자연권 보장 촉구하라" 선언

2월 8일 전법회관 대화마당서
인간, 자연 상생 방안 등 제안

불교계의 자연권 논의 확장을 위해 모인 '자연의 권리를 생각하는 불자 모임(이하 자생불)'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자생불은 2월 8일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교육장 선운당에서 개최한 '불교! 자연과 자연권을 말하다'는 주제 대화마당에서 〈자연과 자연의 권리를 위한 불자 선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듯, 자연 역시 스스로의 주인으로 '인격성'을 갖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의 법적, 도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간중심주의적인 오만함에 바탕을 두고 지구공동체를 위협하는 구조와 체제, 법령 등의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 스스로 주체임을 받아들이는 과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생불은 "인간은 자연에 의존해 사는 자연의 일부인만큼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 자연을 대변할 기구를 둬야 한다"며 "지구의 생태 질서를 교란하고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제활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령 기자